잭 머레이L 느헤미야L 강의 T

Steven Fletcher 작성, 2008년 Gordon College

성경전도(Bible Evangelism)는 잭 머레이 박사(Dr. Jack Murray)의 강해설교를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구세주를 높이고 듣는 사람인 당신을 축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강

여기 Jack Murray 박사가 있습니다:

소개

이제 오늘 아침 느헤미야서 8장을 펴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아침 강의에서 나오며, 잠시 시간을 내어 복습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큰 구분은 기도에 나타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배경, 이 책의 주요 성격,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페르시아의 수산 궁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예배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깊이 염려하며 첫 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부흥 기도를 전합니다. 첫 번째 날에 말했듯이, 1장의 활동은 사실상 전체의 축소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아침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이중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3절에서 따온 "진리를 위해 용감한",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따온 "싸움에 용감한". 이는 2장을 거쳐 7장을 완료하는 동안 건물을 짓고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벽 완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추적하고, 갈등의 7가지 뚜렷한 요소를 추적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강의는 이 책에 매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경계"입니다. 13장.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승리와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모든 사람의 언어에서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남부 주를 여행한다면 아마도 부흥이라는 위대한 별명이 붙은 수많은 표지판을 교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들이 일련의 전도 집회, 즉 소위 부흥 집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을 수도 있고, 즉 부흥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련의 집회가 부흥 없이 지나갔습니다. 북쪽에서는 보통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펜실베니아에 얼마 전에 갔었지만 확실히 이 교회 앞에서 집회에 왔을 때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부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련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좀 맑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부흥"은 오늘 아침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50가지 다른 것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흥을 바하마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감정적 과시나 감정적 폭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점퍼라고 부르며 바다 위로 깨끗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잉으로 간주하고 "부흥"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5편에 번역된 부흥이라는 단어는 “주의 백성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히야(hiya)'와 돌아오다(return)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shuv)'가 합쳐진 말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이 단어는 돌아오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에 있고 생명이 없다면, 즉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부흥이 필요하지 않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의 죽음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이 신자라면, 비록 당신의 영적 생명의 불꽃이 아주 약하게 타오르고 있거나 꺼져서 따뜻한 불씨만 남아 있을지라도; 불을 일으키려면 바울의 언어로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관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좋아합니다. "불꽃을 부채질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을 부채질하십시오. 부흥은 역동적인 영적 삶의 활력으로의 복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련의 회의나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경 부흥의 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강당을 떠날 때 당신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해 나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이 책과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경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8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에게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8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있던 거리에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워터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워터 게이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문 옆에 있습니다. 우리 손님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에 관해 묻자 이것은 이 책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열두 큰 문 중 하나입니다. 워터 게이트.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갑자기 처음 7장 전체에 걸쳐 평신도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느헤미야. 그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점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 명 대집회의 때가 이르매 느헤미야가 물러나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에즈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그의 책의 마지막 네 장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는 처음 여섯 장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장면보다 약 12~15년 전의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에스라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위대한 영적 각성을 이끌면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준비하였었느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에스라 7:10. 우선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대로 순종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그게 전부라고 말한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영적 대각성의 인간 지도자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을 가져오세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보세요. "책을 가져와라." 다시 말해보세요. 너무 많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가져오세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중적인 연구와 중심성과 가장 중요한 본질로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각성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수천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가져와라." 그들은 어떻게

책을 가져왔나요? 여기있어.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 여자 무론 들을 수 있는 모든 회중 앞으로 가져가서 성막 앞 거리를 향하여 그것을 읽으니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수문을 통해 남자나 여자나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느 8:2-3)

만약 당신이 그 현장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딤이 일어섰고 열세 사람이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서 에스라를 도울 능력 있고 훈련받은 성경 학자, 성경 교사입니다. 이름이 붙은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에즈라와 열세 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모든 백성 위에 있으니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아멘! 아멘! 그들은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 8:5f).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13명의 남자가 더 있습니다. 스물여섯 더하기 에스라. 꽤 좋은 교수군요. 지금은 교수진이 9명밖에 없는데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27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설교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은 8절에 있습니다. 여기있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느 8:8)었습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사람들이 듣는 것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 구약의 아람어 부분, 신약의 코이네 그리스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자로 나가야 한다. 그가 강단에 서는 데 대한 유일한 변명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년간 성경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할 것입니다. 나는 1941년에 Harvey Cedars 컨퍼런스를 설립했습니다. Jack은 5년 후에 이 컨퍼런스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뉴욕에서 Jack을 도우며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10년 후 Harvey Cedars를 떠났고, 성경의 언어적 완전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플랫폼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단에 왔다는 것을 말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밖의 거의 모든 일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조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부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장을 계속 읽어보실 수 있으며, 율법, 즉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완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첫 번째 요점 전체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 책을 가져와라."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읽은 9절, 13절, 18절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그것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앉아 계시고 개인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다면 개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8시에 열리는 기도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에 있을 개인 작업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수업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으로서 지난 24시간 동안, 말하자면 먹이를 주는 시간에 당신 자신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세 끼 식사를 하신 분은 몇 명입니까? 네 끼의 식사를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는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배고프고 약하다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배가 아픈 것입니다. 당신은 굶주리고 영적으로 약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 있으니 곧 마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먹이와 육신의 먹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서- 영적.

내 친구 중 한 명은 “성경 없이 아침 식사도 없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 식사 때 성경을 먹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죠. 부흥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 먹이는 시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책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포기하는가"에 관한 그의 책 마지막 장은 책 전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Paul Little이 쓴 "봄에 먹이주기"라고 불리는 이 책은 책 전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괜찮은.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가족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가족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의 보물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설교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설교자들의 가족들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부흥의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온갖 종류의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저녁 식사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던 중에도 아이들이 디저트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우리 스무 명 모두가 모였을 때처럼요. 제겐 스무 명의 아이들이 없고 별로 걱정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법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우리 20명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식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모임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내아들을 미들턴 선교사로 임명하여 매일 가족의 예배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고, 엄청난 식사를 했으며, 엄청난 영적인 먹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될 때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가져와라."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큰 요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가르침임을 기억하십시오. 9장, 보세요. “이제 달 사흘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흙을 덮고 모였더라 이스라엘의 보좌가 모든 이방인과 성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불의를 자복하니라” 그 열조가 자기 자리에 서서 하루의 사분의 일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느헤미야 9:1ff)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 고백 예배를 이끄는 이들 중 몇 사람, 즉 레위인과 조력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그들의 명령은 “일어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며 네 영광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였습니다. 모든 축복과 찬양 위에 뛰어나시느니라.” 그 구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은 과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접속사 " 그러나"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상상해 봅시다. 조금 성스러운 상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문(Water Gate)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될까요? 우리가 듣게 될 첫 번째 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흐느끼는 소리,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단어가 두렵습니다. 나는 "고백"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고백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표준은 누군가가 그것을 남용하고 당신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는 공개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고,

신자 사이에는 잘못이 있을 때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개적으로 고백할 자리가 있습니다. . 이제 여러분은 이 고백 모임에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에 놀랄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나요? 자부심. 아, 살인 간음이나 더러운 마귀의 일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은 너무 교만합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그 십자군에서 120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지만 넷째 날 밤에는 ... 나는 비공식적으로 조금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더 빨리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지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Hile 부인에게 당신이 일요일 밤에 그리스도께 나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Anna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전에는 안 왔어? "나는 세상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있었지만 전날 밤에 구원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쪽에서 4, 5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선생님, 이 교회 성도들이 10년 동안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왜 그 전에는 오지 않으셨나요?" 그는 순간적으로 "나의 더럽고 썩은 자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미국 근본주의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옛 노래가 들어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요 받은 것을 믿을 때부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낮아진 교만을 자랑하노라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죄인이로다." 자부심의 고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영적 무감각. 이제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는 "목을 굳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드보일드 기독교인입니다. 한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중앙 부분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안내자가 머지않아 와서 그에게 가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밖으로.

우리에게는 흐느낌이 더 필요하고 눈물이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얼어붙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둔감합니다. 회중이 가득 차 있다면 설교를 결코 멈추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가면 저쪽에 늙은 아버지 맥콜이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말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 많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마시고 있었는데, 통로에서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기대고 있었는데, 몸의 움직임이

고통스러워서 그가 "잭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전체 개요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 다음 나는 참을성있게 들었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 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 번째 지점으로 와서 그의 목소리가 목이 메고 "Brother Jack"이라고 말하곤했습니다. 나는 이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정말, 언제든지 갈 것 같았어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기억난다. 나는 십자군을 닫고 차에 탔는데 막 끌려가려고 할 때 “잭 형제님!”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저는 아빠 맥콜에게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아, 다음에 네가 올 때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지만,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다시피 나는 몸을 숙이고 빨리 차에 타야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은 거기에 없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진실로 예언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거부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서 배 구덩이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절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직자들이 돌처럼 단단한 곳에 가는데, 동시에

거리에서는 술주정뱅이들이 내 손을 잡고 형제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감각. 나는 감정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정한 성경적 자세를 위해 우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다시 보세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부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같은 장 29절, “저희를 증거하사 저희로 다시 주의 말씀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느헤미야 9:29)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내려가서 난간에 발을 올려 놓을 필요도 없고 바에서 무언가를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타락자가 되기 위해 어떤 악랄한 죄의 현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 신도석에서 그만큼 빠르게 뒤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덮개를 씌운 하수구에 내려갈 수 있듯이. 그리고 내가 설교해야 한다면, 교회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술집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설교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갱단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술집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할 일을 즉시 할 것이고, 우리는 5초 안에 부흥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새로운 진리에 대한 복잡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해야 한다면, 당신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물론 " x" 그러나 당신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45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18살이었어요. 저는 꽤 좋은 장면에 참여했고, 부흥이 나온 이런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리는 12시간 후에 모임을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군중이 증가했습니다. 나는 군중을 해산시켰을 때 아무도 떠나지 않았을 때 부흥이 일어난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Vancouver British Colombia Canada, Renflew Avenue Baptist Church에서 초대장을 보낸 후 군중을

해산시켰으나 한 영혼도 그 교회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초대를 했는데 16명이 더 왔어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해고했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 워터 게이트에 있었다면 나도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Clarks Summit에 있는 침례 성경 신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침례 성경은 40년대에 그곳에 최초의 침례 교회였던 Johnson City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의 시리즈를 가지고 오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얻은 느헤미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월요일 밤 설교: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주제로 설교했는데,

예배가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서 “말해도 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장을 보고 “이건 어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당신이 설교했고 오늘 새벽 2시에 나는 내 방에서 끝까지 서서 내 삶에 새로운 기쁨과 축복과 자유가 있음을 간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앉았고, 한 소녀가 일어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침례신학교에 왔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 한 명이 “그 소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녀와 이 학생회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가 바로 그때 그녀에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제가 이런 말을 전한 모든 사람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친구가 즉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침례성경신학교에 왔을 때 저는 양철 세공인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학교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상 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그 작은 케이스를 집어들었고 모든 도구는 그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오늘 오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그것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영이 만연한 한 시간 동안 나는 어깨를 두드렸고 한 교직원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을

준비하며 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나는 학생들을 속이고 그들이 받아야 할 것과 그들이 지불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학생회가 저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후에 문을 닫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오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폭도들의 심리나 그와 비슷한 어떤 비난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또 있다면 저는 그 방에 있을 것입니다.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5시간 후에 나는 줄을 서 있는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가톨릭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위대한 기억 중 일부는 그곳에 앉아서 사악하고 사악한 것들이 아니라 단지 부흥을 막는 것들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몇 년 후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나를 처음으로 만난 교수진 중 한 명은 "우리는 마지막 방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비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구원받기 전과 거의 비슷하고 거의 자연적인 수준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지금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도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뭔가 잘못됐다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 기적, 환상적인 일이 있지만, 그것들 없이도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면 그 부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도

응답에 대해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여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이로움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악마는 우리가 자연적인 수준에서 살도록 놔두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몇 년 전 누군가가 나에게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게시판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일정은 모두 작성되어 있고, 몇 달, 몇 년 앞서 여러 곳에서 작성되었으며, 예산은 모두 조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당신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라고 말했고, 때로는 거의 후회할 뻔했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다음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놀라야 합니까? 이것은 모두 부흥의 구조의 일부입니다.

괜찮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 시간이 이미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두 지점으로 더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부흥으로부터 듣게 될 세 번째 것은 10장입니까, 아니면 9장의 마지막 몇 마디만 말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를 인봉하였느니라"(느 9:38).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당신을 괴롭히면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정이라는 단어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전도자들에게 덤벼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와서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전도자가 있을 때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결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정을 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언약, 합의, 결정에 그것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그것에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네, 느헤미야... 그가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목록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10장을 읽으면 이 책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10장을 읽으면 특히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강조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간에 대한 결정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0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모든 사람의 달란트가 주님께 맡겨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곳 사람들은 십일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제 잠깐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이미 했던 것과 우리가 들은 내용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나를 주의깊게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잭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의 기도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까? 5대 11까지는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여백을 살펴보고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영혼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 6절에서 그가 자기 죄와 그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읽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백에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 그렇다면 그가 예배 장소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포로였기 때문에 기적을 가져올 기적을 볼 수 없었을 때 그의 시간 과 재능 과 보물이 주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이제 1장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 장에서도 5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것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신의 장입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어떤 방향으로 걷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부 속담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여자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녀는 내 친구가 사임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15년 전 열린문교회를 그만뒀을 때 그녀에게 작은 사건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훌륭한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Barbara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팔을 잡고 "야, 너랑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했고, 나는 "무슨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데” “무슨 일이냐” “당신은 떠나는데 내가 당신의 사역을 할 때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에게 왔는지 말했고 그녀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그 이후로 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내 밑에서 소품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바바라, 당신의 영적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 당신과 함께 여길 떠나십니다” back to your side 주님, 나와 함께 내 마음은 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 그들은 이 부흥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에는 또 다른 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캔에 담아 노래해 왔지만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 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온, 당신은 성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부흥의 넷째 표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잭님 말씀은 꽤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의 결과, 죄의 고백, 엄숙한 언약의 결과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입니다. 10절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기 시작하니” 그리고 8장 17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심히 기뻐하더라” 27절, “기쁨으로 봉헌식을 지켰으니” 12장 43절 “그 날에 그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큰 기쁨으로 기쁘게 하셨음이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여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멀리서까지 들렸습니다." 참된 성경의 기쁨은 어리석은 미소나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것들의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시편 85:6).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주 겪은 일인데, 며칠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한번은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마치 칼로 때리듯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는 듯이 쳐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가 정말 괴로워요.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마워요” 하고 나는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녀는 추악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것은 추악해서 그녀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위대한 고백의 시편인 51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오늘 오후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마감일이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의 금요일 같았어요. 우리는 금요일 밤 예배를 위해 왔고 군중 너머로 빛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녀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공개적인 고백도 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보기만 했고, 나는 그 승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항상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각성의 네 가지 큰 표시. 절하며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제4강의 주요 내용 개요

1. 소개
    a. 느헤미야 “이 책의 주요 인물”을 소개합니다
        I. 페르시아 수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II. 그의 관심, 부르심, 결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b.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I. 첫째: 제1장 대부흥기도
        II. 두 번째: 2~7장: 진실을 위해 용감하고 싸움에 용감한 사람
2.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a. 남과 북의 사례
    b. 시편 850편
    c. 히브리어 히야(Hiya)와 슘(Shum), 삶과 귀환
    d. 삶으로의 복귀로서의 부흥
        I. 역동적인 영적 생활로 돌아가기
3. 에스라 소개
    a.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마음의 준비
    b. 책을 가져와
        I. 부흥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4. 이해의 중요성
    a.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b. 또 책을 가져오세요.
5. 영적인 먹이주기
    a.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b. 기독교인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독서
6. 고백:
    a.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경이로움에 경탄하라
    b. 개인적, 사적, 공개적 고백

c. 자존심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

I. 교만은 원죄이다

d. 하드보일드 기독교인:

I. 영적 무감각

II. 영적인 타락

7. 부흥의 예

a. 교회

b. 침례교 성서 신학교

8. 신 없이 불가능을 위한 공간

a. 기적을 바라보며

b.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9. 결정하기:

a.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다

b. 헌신의 완전성

10. 주님의 기쁨

a. 엄숙한 고백 이후의 진행

b. 예루살렘의 기쁨